

식민지인의 형성 I *

— 싱가포르 잡지 『The Straits Chinese Magazine : A Quarterly Journal of Oriental and Occidental Culture』(1897) 중심으로

이정인**

목 차

1. 서론
2. To be King' s Chinese or Queen' s Chinese?
왕 또는 여왕의 중국인 되기?
3. '공론장'으로서의 <SCM>의 역할
4. 내부적 시선으로 재현된 식민지인의 형상들: Fiction을 중심으로
5. 결론

국문초록

제국의 질서가 근대성의 기준점이 되고, 제국을 보편적 균질성으로 인지하여, 이외의 식민지는 이질적 영역으로 명명하고 재현한 질서 속에서, 아시아는 일방적이며 강제적인 근대성이 점차 내재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아시아'는 내재화된 타자들, 서구인들이 되었고 발전하여 현재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의 미'로 재현되는 아시아의 모습은 누구의 시선인가라는 질문에 서구(일본을 통한 제서구화) 즉 제국의 시선에서 기원된 경우가 많다. 근대시기 타자의 시선으로 재현된 아시아, 그리고 내부화된 타자들이 재현했던 근대성은 시간이 흘러 현재의 모습을 만들었다. 이 글은 이질적이지만, 보편적, 균질적인 시선에서 아시아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상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2138)

**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연구교수

관없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한다.

외부의 충격인 ‘근대성’을 자기 것으로 전유하는 방식은 ‘아시아’ 각국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고 일국사로만 해석되지 않은 아시아의 다양한 로컬리티를 대문자 역사(History)의 경계를 넘어 트랜스내셔널한 관점으로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싱가포르-홍콩-타이완은 ‘중화권’이라는 명명 하에 국가-민족 담론으로, 다시 한번 ‘중화’의 시선으로 재필터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국가-민족의 패러다임 안에서 동시에 국가의 경계를 넘어(트랜스내셔널 transnational) 신실하게 새로운 영토를 그려내고 있다. 단지 공간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미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말이다. 이에 필자는 아시아에서 타자에 의해 강요된 근대가 내재화되어 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어떻게 식민지인이 형성되었는지를, 싱가포르 잡지 <The Straits Chinese Magazine> (1897)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잡지 <The Straits Chinese Magazine>, 해협태생 중국인, 내재적 로컬리티, 근대적 식민지인, 해협 식민지

1. 서론

‘세계화’란 단어가 키워드가 된 시절이 있었다. 이에 무엇을 ‘세계화’라 하는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결국 ‘세계화’란 힘의 논리에 의한, 미국화일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세계화’를 무엇이나고 정의할 때 그 기준은 결국 서양, 그 중에서도 미국이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의 대항해시대, 디스커버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이후 제국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세계시민주의)이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세계화’란 이들에게는 ‘자국’의 팽창을 의미한다.

제국의 질서가 근대성의 기준점이 되고, 제국을 보편적 균질성으로 인지하여, 이외의 식민지는 이질적 영역으로 명명하고 재현한 질서 속에서, 아시아는 일방적이며 강제적인 근대성이 점차 내재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아시아’는 내재화된 타자들, 서구인들이 되었고¹⁾ 발전하여 현재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의 미’로 재현되는 아시아의 모습은 누구의 시선인가라

는 질문에 서구(일본을 통한 재서구화) 즉 제국의 시선에서 기원된 경우가 많다. 근대시기 타자의 시선으로 재현된 아시아, 그리고 내부화된 타자들이 재현했던 근대성은 시간이 흘러 현재의 모습을 만들었다. 이 글은 이질적이지만, 보편적, 균질적인 시선에서 아시아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한다.

외부의 충격인 ‘근대성’을 자기 것으로 전유하는 방식은 ‘아시아’ 각국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고 일국사로만 해석되지 않은 아시아의 다양한 로컬리티를 대문자 역사(History)의 경계를 넘어 트랜스내셔널한 관점으로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싱가포르-홍콩-타이완은 ‘중화권’이라는 명명 하에 국가-민족 담론으로, ‘중화’의 시선으로 재필터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국가-민족의 패러다임 안에서, 동시에 국가의 경계를 넘어(트랜스내셔널 transnational) 신실하게 새로운 영토를 그려내고 있다. 단지 공간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미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말이다.

이에 필자는 아시아에서 타자에 의해 강요된 근대가 내재화되어 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근대적 주체로서, 식민지인이 형성되었는지를, 싱가포르 잡지 『The Straits Chinese Magazine』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To be King's Chinese or Queen's Chinese? 왕 또는 여왕의 중국인 되기?

‘근대’로 되돌아가 그 시대를 산다면, 이전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상상도 못할 ‘세계관’이 앞에 펼쳐질 것이다. 철학이 등장하고 나서도 대중에게는 뫼토스가 훨씬 더 강하고 광범위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뫼토스적인 시각(신화적 시각)으로 주변 세계와 자기 삶을 이해했다. 그

1) 서영채, 「동아시아라는 장소와 문학의 근대성」, 『comparative literature』72, 2017, 134-137쪽 참조

러나 철학적 사유는 ‘이성’이라 불리는 인간의 사유 능력을 활용해 자연계, 나아가 인간계에 존재하는 이치를 탐구하는 사유 양식으로 발전했고, 근대가 도래하면서 삶을 지배하던 뮈토스적 세계관에서 ‘로고스적 사고’가 부활하였으며, 17-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로,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가 절정에 달하게 된다.²⁾

이러한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제국주의는 아시아에 진출했고, 그렇게 ‘아시아’ 중 해협식민지인 싱가포르³⁾는 근대적 사유와 마주하게 된다. 싱가포르의 잡지 『The Straits Chinese Magazine: A Quarterly Journal of Oriental and Occidental Culture』(이하 <SCM>⁴⁾)은 1897년~1907년까지 발간된 잡지로, 편집자이자 발간인은 Song Ong Siang⁵⁾과 Lim Boon Keng⁶⁾이다. 이들은 근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지식인들로, 모두 여왕의 장학금을 받고 영국에서 유학하며 제국 영국의 시스템(정치, 사회제도, 상업 등)을 마주했다. 이러한 영국의 시스템이 도입된 싱가포르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싱가포르인들의 삶은 ‘해협 태생 중국인Straits-born Chinese’란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태어난

2) 한기철,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적 행위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22, 18-20쪽

3) 1826~1867 :영국 동인도 회사령 ▶1867 이후 : 영국 정부가 직접 지배 ▶1942~1945 : 일본 점령 ▶1957년 말라야 연방 수립 ▶1963년 말라야 연합이 말레이시아로 확대 ▶1965년 싱가포르 독립 해협식민지 : 싱가포르 + 말라카 + 페낭의 3개 영토 합침

4) 1897년 발행된 창간호는 800부 전부 매진되었다.

5) (1871. 6.14~1941. 9.29), 영국에 의해 기사 작위를 받은 말라야 최초의 중국인, 1888년 여왕의 장학금을 받고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법을 공부, 1894년 최초의 중국 법정 변호사가 되었다.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1894년 최초의 로마화된 말레이어 신문인 <Bintang Timor>를 창간, 지금까지도 싱가포르의 역사를 논할 때마다 언급되는 『One Hundred Years' History of the Chinese in Singapore』(1923)을 집필하였다.

6) (1869. 10.18~1957. 1.1), 1887.7년에 여왕 장학금(Queen's scholarship)을 받고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 유교를 옹호하고 중국의 쑨원의 혁명을 지지, 그는 14년 동안 해협 정착지 입법회의 일원으로 봉사했으며, 해협식민지의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교육 및 아편 규제와 같은 사회 개혁을 추진했다. 영국의 확고한 지지자인 Lim은 에드워드 7세(1902)와 조지 5세(1911)의 대관식과 같은 영국 식민지 정부와 관련된 주요 행사에 참여했다. 교육개혁을 옹호, 1899년 싱가포르 중국여자학교를 설립하였으며, 19세기 후반 중국에서 일어난 개혁운동과 혁명의 영향을 받아 변발 자르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지역인 해협(장소성)과 민족인 중국(민족성), 그리고 제국 영국의 시스템(해계 모니)이 뒤섞인 식민지의 삶이었다. 이에 대해 1897년 창간호 3쪽에 실린 글 <The Straits-born Chinese>은 해협태생 중국인(Straits-born Chinese)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살피고 있다.

“해협 태생의 중국인은 출생과 함께 모든 특권과 혜택을 누리는 영국 시민입니다. 반면에 당신은 혈통, 전통 및 관습으로 연결된 중국 태생의 중국인(China-born Chinese) 중에서는 소수입니다. ...당신은 이곳의 영주권자로서 유럽인보다 중국 태생의 중국인과 훨씬 많이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유럽인에게 한 얼굴을, 중국 태생의 중국인에게 한 얼굴을 제시해야 합니다....여러분은 이곳에서 엄청난 권리와 특권, 자랑스러운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잘 알다시피 중국에는 중국 시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헌법상 노예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권리가 없으며 시민으로서의 특권도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의무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해협 태생의 중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해협 태생의 중국인이 공적 생활에 나서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를 설명합니다....관습, 전통 등 중국과 연결되어 있지만,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국인 이웃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는 해협 태생의 영국 시민이 되고 중국에서는 중국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영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당신에게 공개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SCM, Vol.1 No.1 3쪽부터 참조)

‘The Diamond Jubilee’⁷⁾

“빅토리아 시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지는 않더라도 가장 위대한 시대 중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중간생략)...오늘날 대중이 기념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은...(중간생략)...여왕의 은총 아래 평화와 번영, 풍요를 누린 이 세대 신민들의 감사와 충성을 미래 세대에게 기억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중간생략)...결과적으로 우리는 여왕의 Diamond Jubilee를 기념하기 위해 해협 정착을 위한 대학을 제안합니다. 싱가포르의 대학은 해협 정착지 뿐만 아니라 말레이 반도 전체와 주변 국가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SCM, Vol.1 No.1, 25쪽)⁸⁾

7) 빅토리아 여왕의 60년 통치를 기념하는 행사

“Hail Victoria! - A Tribute to Her Gracious Majesty Queen Victoria on the occasion of her Jubilee 1897”⁹⁾ 이 시는 빅토리아 여왕의 치세를 찬양하며 지은이가 Singaporean으로 되어 있다.

빅토리아 여왕의 60년 통치를 기념하는 행사인 ‘The Diamond Jubilee’를 축하하며, 싱가포르 대학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빅토리아 여왕의 치세를 찬양하며, 특히 싱가포르인은 해협 태생의 영국 시민임을 강조하고 있다.

식민지 경험을 공유한 한국의 경우, 외세의 침략을 받는 과정에서 태생적으로 강한 민족주의적 경향을 지니게 되었고, 식민지 경험은 그러한 경향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식민지적 근대를 둘러싼 논쟁은 내재적 발전론과 수탈론에 입각한 ‘민족주의적 역사서술’에 대해 식민지 근대화론 및 탈민족주의론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수탈인가 개발인가’ 그리고 식민지 시기 사회적 변화에 나타났던 근대성 문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¹⁰⁾ ‘민족주의적 역사서술’의 관점에서 보면 위 기사들은 반민족적, 반국가적이다. 그러나 19~20세기를 살아냈던 미시적 삶들은 거대담론의 이분법적 관점이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들¹¹⁾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9세기와 20세기 초 중국 외 지역에서 형성된 ‘중국인(민족) 공동체’를 혼종화로 묘사한다. 해협 태생 중국인(Straits-born Chinese)의 경우, 중국 태생 중국인(China-born Chinese)과 식별하기도 하지만, 디아스포라, 정체성 또는 화교 등 민족성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필자는 이 역시 ‘중국’이라는 필터링을 재차 거친 의견이라고 여긴다. 필자는 ‘민족성’에 기반한 이와 같은 관점보다는 아시아에서, 특히 식민화된 아시아

8) 비교: ‘Golden Jubilee’, 1887, 빅토리아 여왕의 50주년 통치를 기념하는 행사

9) <SCM> Vol.1, No.2, 1897

10) 이승열, 「‘식민지근대’론과 민족주의」, 『역사비평』80, 2007, 83쪽

11) 대만의 장룽즈張隆志는 식민지 근대성을 5가지로 정리하였다. 1. 개별적 식민지적 근대성, 2. 모순적 식민지적 근대성, 3. 통치기술적 식민지적 근대성, 4. 혼용적 식민지적 근대성, 5. 대안적 식민지적 근대성, 창룡치, 「식민주의 근대성과 대만근대사연구」, 『역사문제연구』12호, 2004

지역들이 어떻게 서구의 근대성, 그 타자성을 내재화하며, 근대적 식민지 시민으로, 더 나아가 근대적 로컬리티를 구성했는지에 살피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위의 기사들은 명백히 자신들(Straits-born Chinese)을 영국의 시민으로 정의한다. 중국에는 시민이 존재하지 않고 노예로서, 순종만이 있을 뿐이라고 평하며, 자신들이 영국의 특권과 보호를 받고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이들은 영국인들보다 중국인들을 더욱 많이 접하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중국인의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중국과 좋은 이웃이 될 뿐, 중국인이 되지 말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민족성’에 기반한 정체성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왕의 시민인 해협 식민지 중국인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1897년 총4번 발간된 <SCM>의 목차를 살펴보자.

<표1> 【Table of Contents】 (1897)

CORRESPONDENCE Eccentricities of letter writing	LOCAL-POLITICS Gold Currency for the Straits Settlements, Legislative Council Our Poison laws Proposed Straits Gold Currency Sir C. Smith and the Chinese Advisory Board
CURRENT EVENTS Alleged grievances of the Chinese Chinese Athleticism Chinese New Year Sports Diamond Jubilee Gambling among Chinese women King of Siam's Tour Military protection of Penang. Permanent Memorial of the Diamond Jubilee. Public Spirit in the Native States, Reforms for the Babas,	MISCELLANEOUS C. D. O. Chinese Abroad Our First Volume Our Programme Sir C. Smith's good-wishes What is loyalty?
EDUCATION Duties of Parents and Teachers. English Education in Amoy, International Institute at Peking. Professions for the Straits-born Public Instruction Queen's Scholars, 1897	PERSONALIA Baba, law student, A Dr. W. C. Brown H. E. Wu Ting Fang Hon'ble D. Logan Miss Hu Knwto Professor'DtVMMONn and his time

Teachers' Conference on the New Educational Code	Queen Victoria About Sir W. E. Maxwell
Value of English Education to Chinese	RELIGION
Young in years, in judgment old	Physical Religion
ETHICS	Relation between religion and Government
Moral Culture	Western knowledge and the East
FICTION	SCIENCE
A Malayan Episode	Infectious Diseases and the Public
'Twixt duty and disgrace	Struggle for existence in nature among plants
Two Real Ghosts	SOCIETIES
Wedded by a Matron	Anglo-Chinese School Literary Society
FOLKLORE	Chinese Christian Association
Origin of the Sole and the Ring-dove	Chinese Philomathic Society
GEOGRAPHY	Penang Young Men's Association
Peep at Kedah, A	SOCIOLOGY AND ETHNOLOGY
HISTORY AND POLITICS	Chinese Idols and real evil spirits
British Subjects of Chinese Descent	Currency of Tringganu
Chinaman as a Soldier	Our Enemies
Greco-Turkish War	Our Straits-born Chinese
India under Queen Victoria, Partition of China	Position of Chinese Women
LITERATURE	Prevention and Depression of Crime
Book Reading	Straits-born Chinese
Ecclesiasticus	VERSES
Poetry of the Malays	Annie Laurie
Some genuine Chinese authors	Greeting to our first-born, A
	Hail Victoria!

위 목차를 살펴보면, 주변 소식이나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기사를 제외하고는 해협 중국인들의 교육, 생활, 종교, 역사, 언어 등에 대한 글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SOCIOLOGY AND ETHNOLOGY(사회학 & 민족학) 글 중 이 잡지의 창립자인 Lim Boon Keng은 <우리의 적Our Enemies>(〈SCM〉, Vol.1, No.2)이란 글을 실었다. 그는 “진짜 적을 구별해야 하며, 종종 기독교 선교사와 외국인을 의심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와 종교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최악의 적은 우리 자신이다! 어떻게 그러는지는 교육, 관습 및 사회생활, 종교를 통해 말하고자 한다....교육에 있어 여기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잘못된 애국심, 고대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비합리적인 확신, 무지와 미신에서 비롯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바뀌어야만 합니다.”고 언급하며 영어 교육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중국의 우상들과 진짜 악령들(Chinese Idols and real evil spirits)>(SCM, Vol.1, No.3)이란 글에서는 교육받은 중국인들이 한 시골을 방문하여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한 남성에게 대해 마을 여자들이 그가 악령에 사로잡혔다며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이는 악령이 아니라 술에 취했을 뿐, 거자와 물을 떠먹이고 후에 의식이 돌아온 사례를 언급하며, 상식을 넘은 이러한 미신적 행위를 하는 이유를 묻고 있다.

이렇듯 <SCM>에서는 ‘중국’의 전통이란 이름으로 내려오는 미신, 불결함, 미개함 등 이성과 계몽의 시대인 근대적 사유를 방해하는, 발전을 가로막는 것들에 대한 칼럼들이 많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아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글이 실리기도 한다. 이 잡지의 창립자인 Song Ong Siang은 <중국 여성의 위치 The Position of Chinese Women>란 긴 글에서 싱가포르의 여성(Nyonyas)에 대해 무지하고, 의존적이며, 자유가 결핍되었음을 언급하며, 개선의 옹호자로서 개선의 이유와 수준 높은 문명을 이룬 나라는 여성을 존경하는 나라라고 지적한다. 지적 교육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도박이 아닌 다른 즐거움을 제공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근대적 사유를 기사로 공론화시키는 대부분의 저자들은 Societies 부분에 기록된 협회들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SCM>이 창간되기 전부터 해협 식민지에서 활동하며 해협 식민지의 여성 교육, 언어 교육, 도덕과 관련된 글, 기독교와 기타 종교, 중국 전통과 관련된 글과 강좌를 통해, 공공의 영역에서 그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싱가포르에 이식된 영국의 제도 아래, 서론에서 언급했던 세계화, 즉 제국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을 향해 사회 변혁을 주장하며, 영국의 시민으로, 중국 태생의 중국인과는 다른 해협 중국인을 상상했다. 이성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의 정점에 있었던 19~20세기, 싱가포르

에서 발간된 잡지 <SCM>은 영국에서 교육받고 돌아온 지식인들이, 영국식 제도가 이식된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주체를 상상했고, 이는 ‘민족성’보다는 ‘해협’이라는 지역성(장소)과 제국 ‘영국’이란 헤게모니를 기반으로 한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로컬리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이 당시 새로운 주체는 제국주의 세계화란 문화 현상 아래, 근대적 시민을 그리고 있다. 공공의 영역은 사회적 시스템으로 근대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지만, 실상 삶을 살아가는 싱가포르의 해협 식민지인들은 여전히 뮌헨적 세계관(신화적)에서 로고스의 세계로 이행중이었다. 이에 영국에서 유학하며 서구 근대의 문화와 체제를 경험한 해협 지식인들은 이러한 간극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찾게 되고 자신들의 생각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여러 협회들이 창설되고 신문이나 잡지가 창간되어 그 플랫폼을 형성하게 된다. 그 중 하나로 <SCM>은 창간되었다.

3. 공론장으로서의 <SCM>의 역할

에드워드 사이드는 제국주의는 “식민지와 식민지를 지배하는 군인, 대포들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관념과 형식, 이미지들과 상상에 대한 것”¹²⁾이라고 했다. 실제로 제국주의는 소설과 시, 연극과 영화, 스포츠 등을 통해서도 선명하게 재현되었다. 곧 식민 지배의 의미를 넘어 19세기와 20세기 초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정신이자 문화 현상이었던 것이다.¹³⁾ 이렇게 외부의 충격으로 타의적 근대 전환을 맞이한 아시아 각국은 이들이 지배했던 문화현상과 시대정신을 내재화하면서 혼란스럽고 규정하기 힘든 근대를 겪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문화의 흐름은 아시아를 향해 일방 통행식 흐름이 형성되었다.¹⁴⁾ 아시

12) 에드워드 사이드, 김성곤, 정정호 옮김, 『문화와 제국주의』, 도서출판 창, 2002, 52-53쪽

13) 권혁희 지음,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17쪽

아는 외부로부터의 근대성으로 인해 커다란 충격을 받았으며 타자의 시선과 인정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고, 그런 시선을 지나는 순간 그들은 내부화된 타자들, 서구인들이 되었다. 19~20세기 보편적인 기준이었던 제국주의, 계몽주의는 대상화되었던 각각의 ‘아시아’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내재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아시아’의 로컬리티를 형성하며 발전한다.

<SCM> 창간호의 첫 번째 글 <Our Programme>은 이 잡지의 주요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잡지의 주요 목적은 해협 태생(Straits-born)의 지적 활동을 촉진시키고 혼란스러운 여론들을 정확한 방향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이는 이 식민지에 정착한 다양한 인종, 관습, 민속, 역사 및 종교와 관련된 유용하고 흥미로운 문제에 대해 토론할 여지를 제공할 것이다...(중간생략)... 특히 이 식민지의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또는 일반적인 관심사인 지역 및 현재 이벤트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름에서만 중국인(Chinese)을 사용했을 뿐 모든 국적과 신념을 대표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SCM>, Vol.1, No.1, March 1897)

“우리는 해협 사람들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목표를 끊임없이 염두에 두었고 우리의 대의와 목적이 옳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비판과 욕설, 심지어 금전적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해협 태생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뚜렷한 여론 변화로 알 수 있습니다. 1897년 우리가 처음으로 잡지를 세상에 선보였을 때, 해협 중국인들은 여전히 조상들의 계보를 따라 조용히 마치 옛 낙원에서 살며 스스로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는 데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다행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금세기의 지적, 도덕적 진보에 동참하고자 하는 욕망, 아니 불안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더 많

14) 서광덕, 「근대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중국학』, 2020, 245쪽

은 과학과 발명품이 전시되는 외부 세계의 더 발전된 모습을 보았고 한
편으로는 영국 시민으로서 정당한 해협 중국인의 자부심이 커지는 것을
기쁘게 주목했습니다.“ (<SCM>, Vol.8, No.1, 1쪽, 1904)

잡지 <SCM>은 당시의 시대정신과 문화현상을 해협 식민지에 알리기 위해,
어떻게 공공의 영역, 혹은 공론장으로 역할을 했을까? 해협 식민지의 잡지로
서, 당시 시대 정신이었던 계몽과 이성으로 개혁 또는 변화를 이끌어 가고자
했던 이 잡지의 수록된 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이성개념을 데카르트식 고립자적 사고 프레임에서 벗어
나 사람들 간의 언어적 상호 작용의 맥락에서 재규정하는 것과 타인과의 의
사소통을 행하는 공적 행위의 특징이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한 인간 사회를 제도로 구성되는 ‘체제(system)’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일상인들의 비형식적인 의사소통으로 구성되는 ‘생활세계(Lifeworld)’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도구적 이성이 체제에서 작동하는 이성이라면, 생
활 세계에서는 그와 성격이 다른 이성, 곧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작동한다¹⁵⁾
고 주장한다. 하버마스는 부르주아들이 모여 예술과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
누던 공간, 그곳에서부터 부르주아 공론장의 문화적 양상이 비롯되었다고 보
고 있다.

잡지 <SCM>은 잡지의 창간 목적에서도 밝혔듯이, 하버마스가 이야기한 공
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한다. 때문에 잡지 <SCM>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
다. 과학, 종교, 교육, 정치, 의학 등 근대적 지식, 예를 들어 자연계의 식물들
이 조용하지만 어떻게 치열하게 생존하는지 등 관련된 지식들 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 문제와 폐낭, 런던, 자바 및 기타 지역의 특파원의 뉴스 및 시사 뉴
스와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19세기 해협 중국인Straits-Chinese 또는 페라나칸Peranakan은 싱가포르

15) 한기철,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적 행위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22, 22쪽 참
조

와 말레이 반도에서 경제적 성공과 함께 지식과 문화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된다. 영국의 행정과 교육 시스템을 통해 해협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으려 노력했다. 그들은 모임을 통해 중국 고전을 읽고 토론했으며, 많은 해협 중국 학회가 설립되었고 그들의 연설과 토론은 <SCM>에 게재되었다. 여러 협회가 존재했는데 예를 들어 중국 기독교 협회(Chinese Christian Association)(1889), Lim Boon Keng이 결성한 중국 철학 협회(Chinese Philomathic Society), 1900년에 결성한 해협 영국 협회 등¹⁶⁾이 있다. John R. Clammer는 해협 중국인 Straits Chinese의 많은 문학 협회(Literature Association)에 대해 개혁주의 동기와 이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며, 대중 교육과 정치적 인식을 조성하려고 했다고 설명한다. 편협한 해협 중국 사회의 지평을 높이고,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박과 같은 사회적 폐습을 없애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한다¹⁷⁾고 언급했다. 해협 식민지는 지역(장소)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와 신흥 세력인 부르주아 계급의 흥성, 그리고 민족성에 기반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다.

<SCM>은 ‘교육’, ‘종교’, ‘최근 사건’ 등의 칼럼을 통해 줄곧 사회적 개혁과 관련한 글들을 수록했다. 특히 중국의 미신, 도박, 마약 등 과거의 후진성과 여성의 교육에 대해서도 줄곧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근대는 전통적 일상을 미개함, 불결함, 후진성, 비이성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스스로를 문명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

4. 내부적 시선으로 재현된 식민지인의 형상들: Fiction을 중심으로

지식, 종교, 교육 등의 지적인 전달을 위한 글과는 달리, 문학 관련 부분으

16) Bonny Tan, 「The Stratis Chinese Magazine, A Malayan Voice」, 『Biblio Asia』, 2011, 참조

17) John R. Clammer, 「Straits Chinese literature: A minority literature as a vehicle of identity」, 『Essay on Literature and society in southeast Asia』, Edit. by Tam Seong Chee, Singapore Univ. Press, 1981, 297쪽

로는 총 ‘소설(Fiction)’, ‘민속(Folklore)’, ‘문학(Literature)’, ‘운문(Verse)’ 4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순수 창작은 ‘소설’에 연재하였으며, 문학 관련 에세이나 중국 고전 번역 등은 ‘문학’란에 실었고, 시와 관련된 것은 ‘운문’에, 신화, 민속 등은 ‘민속’에 실렸다. 필자가 ‘소설’에 주목한 이유는 소설의 허구성 때문이다. 근대 지식을 전달하는 과학적인 글이나 근대 이성 중심의 계몽주의적 글들은 변화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허구성을 바탕으로 한 픽션은 더욱 식민지인의 실제적 삶과 가까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의 허구성은 실제의 삶을 더욱 사실적으로 그려내기 때문이다. 이에 단편소설과 희곡 총4편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2〉 ‘소설’ 내 작품 리스트(1897년 총4권)

	제목	권호	장르
1	의무와 불명예 사이 Twixt duty and disgrace	Vol.1, No.1,2,3	소설
2	두 명의 진짜 귀신 Two Real Ghost	Vol.1 No.3	희곡
3	말레이인의 에피소드 A Malayan Episode	Vol.1 No.4	소설
4	중매쟁이에 의한 결혼 Wedded by a Matron	Vol.1 No.4	소설

이 4편은 <SCM>이 창간된 첫 해에 실린 작품들로,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조악하여, 읽었을 때 다소 당황스러웠다. 필자는 왜 이러한 작품들을 실었는지 질문하게 되었다. <SCM>은 앞에서 살폈듯이, ‘민족성’ 보다는 ‘지역성’에 기반한 커뮤니티를 강조하였다. 이에 ‘해협 태생 중국인Straits-Born Chinese’의 문학적, 민족지학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민속 Folklore’에는 <Origin of the Sole and The Ring-dove>가 4번에 걸쳐 실려 있다. 이는 해협 지역의 민속, 신화로 요정의 땅에 살고 있던 일곱 딸과 중심 인물인 막내딸 남노라Nam-no-rah에 대한 이야기이다. 또한 ‘문학Literature’의 <말레이의 시 Poetry of the Malays>는 당시 말레이 시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운문Verse’의 <Annie Laurie>는 영시를 말레이어로 번역, 소개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설Fiction’의 세 번째 이야기인 <말레이인의 에피소드 A Malayan Episode>를 이해할 수 있다. 소설은 말레이 지역의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두 남녀가 헤어진 이후, 재회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화이트맨의 등장으로 남자는 강제로 멀리 떠나게 되고, 홀로 남은 여자는 그의 이복형제와 결혼을 하게 된다. 소설 속에서는 표면적으로 어떤 갈등상황을 서술하지 않는다. 남자가 도망쳐 그를 수색하는 무리들이 멀리 등장하지만 풍경을 묘사하는 듯 하고, 재회한 여자는 남자가 발각될까 두려워하고 남자는 함께 떠나자고 말한다. 여자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남자가 숨을 수 있도록 함께 바다로 헤엄치다, 힘에 부쳐 아무도 모르게 두 남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이야기의 주도적인 역할은 여자 주인공으로 소설은 긴장상태나 갈등상황이 거의 없이 해협 지역의 자연풍경의 조용하고 아름다운 묘사로 끝이 난다.

위의 소설과 다르게 당시 해협이 당면했던 사회 문제를 반영한 네 번째 이야기 <중매쟁이에 의한 결혼>은 당시 사회적 문제인 ‘해협 중국인Straits Chinese’ 남자의 결혼을 사실적으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중국에서 이주해 온 중국 남자들은 현지 여인들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게 일반적이었다. 당시에는 말라카 해협으로 이주해 온 중국 여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낳은 자식을 ‘해협 태생 중국인Straits-born Chinese’이라 부르게 된다.

이 작품에서 소작을 하면서 돈을 모으던 중국 청년은 자신이 본 여자들 중 가장 못생긴, 마음에 들지 않은 소녀와 결혼(중간에 중매를 담당하던 ‘소녀의 집’ 원장은 영국 여자로 이 소녀 아니면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을 하게 되고 이 소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역시 폐결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아들의 모습(Straits-born Chinese)은 못생긴 엄마를 닮아,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묘사된다. 아들은 자신이 왜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못생기고, 무례하고, 원숭이를 닮았다고 놀림을 받아야 했는지에 대해 묻는다. 아버지는 엄마를 만난 것이 소녀들을 소개해 줬던 ‘소녀의 집Girl’s Home’(적당한 광둥 소녀들을 찾을 수 있는 곳)의 영국 부인 탓이라며, 그 영국 부인에게 복수할

방법이 있다면 아들이 원숭이로 다시 태어나 그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아들은 “다시 이 세상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 과거가 없는 순결한 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하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한다.

소설 속에서 ‘소녀의 집’을 가기 위해서는 영국 관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소녀의 집’ 원장 역시 영국 여자로 묘사되어 있다. 해협 의 중국인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 영국 관리들의 중매를 통해 결혼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음을 작품에서는 묘사하고 있다. 이는 해협 식민지의 제국 영국의 시스템과 현지 사람들의 실재적 삶, 그리고 당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결혼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결혼’은 사회 시스템에서 중요한 기제이기도 하다. 1897년 한 해동안 실린 문학작품 4개 중에서 3개가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위의 두 이야기는 해협 식민지인들의 결혼과 개인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제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면, 첫 번째 작품인 <의무와 불명예 사이>는 서양의 남녀 결혼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두 남녀의 결혼 방식 또한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난다. 보편적인 정략결혼이 아닌 낯선 곳(인도)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연애결혼이며, 선장은 “당신은 그가 영국인이 아니지만 그를 받아들였을 때, 특별한 사랑을 느꼈을 것이고”라고 말하며 영국인과 독일인, 즉 국경을 넘은 국제결혼으로 묘사하고 있다. 독일인 남편은 인도에서 담배 농장을 경영한다. 소설 속에서 행복해 하는 부인과 동시에 “그녀가 선택한 남편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헌신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결혼의 불안정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 불안정함은 남편이 도망자라는 오해로부터 시작되고, 부인은 불명예스러움에 인생을 마감하려 한다. 이에 선장 바커는 행복이란 ‘위대한 사랑과 많은 봉사’로 “말과 행동으로 그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위대하고 영원하다고 보여주었지만, 이는 행복의 절반일 뿐”이라며 부인으로서 의무를 선택할 것을, 남편의 곁을 지킬 것을 조언한다. 결국 이 사건은 동명이인의 해프닝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3개의 작품은 ‘결혼’이라는 키워드로 해협 식민지의 상황을 ‘소설’이란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세 작품이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의무와 불명에 사이>는 ‘결혼’에 대해, 전통적 관습이 아닌 근대적인 도덕적 기준을 세우려 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결혼이란 ‘위대한 사랑으로 무한한 봉사’를 하는 것으로 말이다. ‘사랑’이란 근대적 결혼의 조건이자 특징이다. 전통적 결혼 관습과는 상반된 개인의 발견이고 주체적 선택이며, ‘봉사’는 희생정신을 의미한다. 결혼의 주체로서 여성은 묘사되고, 이는 근대적 여성 주체의 묘사이다. 주인공은 선장의 충고에 스스로 결혼의 의무를 선택한다.

이 잡지의 창립자이자 편집자인 Lim Boon Keng은 중국 내부의 개혁운동을 지지하며 캉유웨이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유교 부흥 운동을 시작한¹⁸⁾ 인물이다. ‘문학Literature’에서 소개한 ‘천재적인 중국인 작가들Some Genuine Chinese authors’은 중국 고전, 예를 들어 장자의 일부를 번역 소개하며 공자뿐만 아니라 노자, 장자의 글과 그 의미를 논하기도 하고, 중국 고전을 몇 번에 걸쳐서 번역, 소개했다. 19세기 이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사상의 대혼란을 겪게 된다.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근대적 사고가 밀려오고, 과거 전통적 사고로 상황을 역전하기 힘들었던 지식인들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사회를 이끌어갈 기준을 세우려고 했다. 이 중 캉유웨이는 ‘유교부흥운동’을 제창하며, 여성차별폐지 및 반자본주의자로서 활동한다. 결국 실패로 끝난 운동이었지만, 이 운동에 Lim Boon Keng은 지지를 보낸다.

당시 해협의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을 영국의 식민으로 인지하지만, 지역과 민족, 해계모니가 다양하게 얹히면서 내재적 변혁에 필요한 도덕적 기준이 필요했고, 이는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고민들이 나타난 작품이 마지막으로 언급할 <두 명의 진짜 귀신들>이다. 이 작품은 3명의 해협 중국인과 3명의 유럽인이 강령회(귀신을 소환하는 모임)을 비밀리에 열어,

18) Bonny Tan, 「The Straits Chinese Magazine, A Malayan Voice」, 『Biblio Asia』, 2011, 32쪽

셰익스피어와 공자 귀신을 소환한다.

셰익스피어 : 나는 인간의 본성을 볼 수 있고 이를 잘 그릴 수 있습니다.
나의 좌우명은 ‘캐릭터’입니다. 영원한 여름을 자랑하지만 꽃의 향기가
없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땅에서 캐릭터는 간신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현자의 모든 지혜도, 당신의 자랑스러운 과학에 대한 개방성도, 육
체적 유산인 당신 민족의 부지런함도, 당신과 함께 영원히 발아하고, 당
신과 함께 죽는 캐릭터를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생략)...

공자 : 당신은 나 자신을 위해서나, 나의 가르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
히 당신의 시대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나를 존경합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향기없는 꽃처럼, 캐릭터가 다양하지 않고 변
성하지 않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시대를 주도하지도, 오히려 공자의 말대로
시대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공자를 소환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다. ‘원숭
이’같은 모습으로 놀림받는 ‘해협 태생 중국인Straits-born Chinese’은 향기있
는 꽃으로, 다양한 캐릭터로 변성하기 위한, 과거 없는 순결한 자로 다시 태
어나기를 소망한다.

서구의 근대적 사유, 계몽주의와 이성 중심의 사고의 유입과 함께, 싱가포르
의 지식인들은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부르주아의 관점에서, 영
국의 시스템 안에서, ‘해협’이라는 지역성과 중국인이라는 민족성 등 싱가포
르의 로컬리티를 특징하는 다양한 양상에서 위의 4작품들은 당시 싱가포르,
해협식민지가 당면한 문제와 내재적 변화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
한 흔적으로 보인다. 이미 영국의 근대적인 사회, 정치 시스템의 변화 아래에
서, 변화되지 않는 전근대적인 전통이라 여겨지는 일상을 어떻게 변혁할 수
있을지, <SCM>의 글들은 도덕적 기준의 재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5. 결론

“해협 중국인이 우리가 즐겁게 읽은 것처럼 자신의 잡지를 읽는다면, 그 것이 그의 도덕적, 지적 향상을 이끄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¹⁹⁾

-홍콩 텔레그래프(HongKong Telegraph), <SCM> 창간 축하글

거시적인 사회체제의 변화, 즉 제국주의, 계몽주의, 이성이라는 근대적 규율이 식민지에 새로운 사회, 정치적 시스템을 변화시켰지만, 그 곳에서 일상을 살아가던 개인의 삶은 국가적인 시스템만큼 빨리 변화하지 않는다. 물론 새로운 근대의 사회적 시스템은 개인에게도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냈고, 근대적 인물의 형상을 상상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인물의 형상들은 새로운 식민지인의 기준이 되고 이를 스스로 내재화시켰을 것이다.

거대 담론에 의한 과도한 이데올로기적 인식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식민지인들의 삶에 다가서는 것, 또는 단일한 민족의 구성원(화교)으로 환원될 수 없는, 싱가포르의 다양한 양상, 즉 민족과 장소, 제국 영국의 시스템 등의 영향 아래 내재화되어가는 근대적 식민지인의 형상과 그 미시적 삶의 궤적들을 살피는 것은 ‘아시아’의 다양한 로컬리티를 살피 ‘아시아’를 재호명하는 일환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해협 태생 중국인Straits-born Chinese’(로컬리티)이 상상하는 모습을 문학작품을 통해 살펴보고, 현재 중화권, 재중국화의 필터링이 아닌 이들이 계몽주의 시대, 타자의 시선으로 형성되었던 근대 시기, 스스로 근대적 사유를 어떻게 변형하고 재해석하여 근대적 식민지인의 이미지를 형성하였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하지만 1897년 창간된 첫 해 4권의 <SCM>에 수록된 문학작품들을 살펴보았듯이 근대적 사회의 변혁과 형상에 대한 고민의 시작점으로 보인다. 앞으로 <SCM>에 수록된 문학작품을 더 살펴, 19~20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아시아의 로컬리티를 구축하며, 근대적 시민의 형상으

19) <SCM>Vol.1, ‘Press Opinion’ 중

로, 어떻게 해협 식민지인의 형상을 상상하고 발전시켜 가는지 그 궤적을 연구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 한기철,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적 행위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22.
- 위르겐 하버마스, 한승완 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 2019.
- 에드워드 사이드, 김성곤, 정정호 옮김, 『문화와 제국주의』, 도서출판 창, 2002.
- 권혁희 지음,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 서영채, 「동아시아라는 장소와 문학의 근대성」, 『comparative literature』72, 2017.
- 서광덕, 「근대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중국학』, 2020.
- 김동노, 「식민지의 민족주의를 넘어 근대로」, 『동아시아비평』6, 2001.
- 이승열, 「‘식민지근대’론과 민족주의」, 『역사비평』80, 2007.
- Bonny Tan, 「The Straits Chinese Magazine, A Malayan Voice」, 『Biblio Asia』, 2011.
- John R. Clammer, 「Straits Chinese literature: A minority literature as a vehicle of identity」, 『Essay on Literature and society in southeast Asia』, Edit. by Tam Seong Chee, Singapore Univ. Press, 1981.
- 잡지 『The Straits Chinese Magazine』 Vol.1, No.1,2,3,4, 1897.

Abstract

The formation of colonists I

— Focusing on 『The Straits Chinese Magazine : A Quarterly Journal of Oriental and Occidental Culture』(1897), Singapore

Lee, Jung In

The order of empire became the reference point of modernity, the empire was recognized as universally homogeneous, and other colonies were named and reproduced as heterogeneous realms. 'Asia' has become internalized others, Westerners, and has developed to form the present. For example, in response to the question whose point of view is the image of Asia reproduced as "Asian beauty," it is often origina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West (re-Westernization through Japan), that is, the empire. Asia reproduced through the gaze of others in the modern era, and modernity reproduced by internalized others, made the present appearance over time. This article begins with a curiosity about how Asia was embodied, no matter arbitrarily or unintentionally, from a heterogeneous, but universal, and homogeneous perspective.

The method of appropriating 'modernity', an external shock, is inevitably different for each country in 'Asia', and the various localities of Asia, which are not interpreted only as one-country history, are transnational from a transnational perspective beyond the boundaries of history. In particular, Singapore-Hong Kong-Taiwan tends to be re-filtered as a national-ethnic discourse under the name of 'Greater China', once again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 However, these regions are faithfully drawing new territories within the national-nation paradigm and at the same time beyond national boundaries (transnational). Not just spatially, but ontologically, aesthetically, and politically.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cess of internalization of modernity forced by others in Asia and how colonists were formed in the process through the Singapore magazine <The Straits Chinese Magazine> (1897).

Key words : Straits-born Chinese, The Straits Chinese Magazine, Inherent locality, Modern Colonists, Stratis Colony

투 고 일 : 2023. 7. 10. / 심 사 일 : 2023. 7. 15. ~ 2023. 8. 15. / 게재확정일 : 2023. 8. 20.

